

현실적 글쓰기 시도하는 참여 지식인의 신작 베스트셀러에

박해현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

프랑스 철학자 베르나르-앙리 레비가 펴낸 《누가 다니엘 펄을 죽였는가(Qui a tue Daniel Pearl?)》가 현재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로 떠올랐다. 레비는 권력과 혁명의 허상을 신랄하게 비판한 책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의 저자로 이미 1970년대부터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에 대한 호오는 분명하게 갈린다. 레비는 강단 철학자에 머물지 않고, 평전과 소설, 영화작가로 다방면에 걸쳐 활동할 뿐만 아니라 냉전 붕괴 이후 발칸반도 분쟁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운동을 펼치는 현실참여 지식인으로 불린다. 프랑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레비를 특사로 파견해 현지 조사 보고서를 작성케 했다. 그러나 그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레비가 모든 현실적 쟁점에 나서서 설치고, 미디어의 화려한 조명을 받으려는 스타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한다. 아무튼, 레비는 새 책 《누가 다니엘 펄을 죽였는가》를 통해 심층취재 언론인 혹은 다큐멘터리 작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했고, 프랑스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이 책은 미국 경제전문지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였던 다니엘 펄이 지난해 초 파키스탄에서 취재하던 중 이슬람 과격파에 납치됐다가 끝내 참수까지 당하는 처참한 주검의 이면을 파헤쳤다. 레비는 펄 기자와 일면식도 없지만, 그의 죽음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갖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미국을 1년 동안 다니며 취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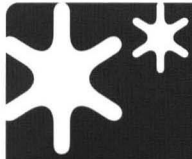
레비는 이 책에서 파키스탄 정보부와 알 카에다 조직의 이중 첩자들이 펄 기자의 살해범이라고 주장했다. 펄 기자는 알 카에다 조직의 비밀을 캐려다가, 아무도 상상치 못한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살해됐다는 것. 펄 기자는 알 카에다가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알 카에다의 배후에 오사마 빈 라덴보다 더 큰 인물이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살해됐다는 얘기다. 알 카에다 조직에는 질라니

Gilani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고, 오사마 빈 라덴은 조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질라니는 한 개인이 아니라, 배후에 숨어 있는 다수의 인물일 수도 있다고 추정될 뿐이다.

레비는 펄 기자의 살해범으로 파키스탄 당국에 의해 체포된 오마르 웨이키의 경력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웨이키는 영국에서 태어나 명문인 런던 경제학 스쿨(LSE)을 졸업한 뒤, 이슬람 근본주의에 빠졌고, 나중에 파키스탄 정보부의 요원이 됐다. 웨이키는 인도에서 여객기를 납치했다가 체포된 뒤, 동료 테러리스트의 도움으로 풀려났고, 파키스탄 정보부의 비밀요원이면서 동시에 알 카에다 조직의 일원인 이중첩자라는 것이다.

레비의 책은 취재에 바탕을 두면서, 더 이상 파고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흠어진 사실들의 인과관계를 조립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탐정소설처럼 읽히고, 레비는 간결한 문장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이 책에서 레비는 ‘악의 축’에서 핵심은 파키스탄이라고 계속 강조한다.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에서 정부는 친미노선으로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태이고, 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난 이슬람 과격파들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레비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적을 착각한 것”이라며 “광신도 집단들이 미래의 위험한 전쟁을 준비중인 파키스탄이 바로 악마의 집”이라고 경고했다.

이 책과 무관한 얘기지만, 9·11 테러 직후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이 “파키스탄이 재앙의 진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요즘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테러와의 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묶어보면서 파키스탄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레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까닭도 그런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박해현**



Spain, Latin America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중요한 두 개의 도서 전시회

송병선 울산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프랑크푸르트·파리·볼로냐·런던 등에서 열리는 도서전시회만을 떠올리지만 라틴아메리카와 스페인에서도 도서전시회는 중요한 문화행사이다. 특히 해마다 4월과 5월에는 중요한 도서전이 열린다. 금년에는 4월 14일부터 5월 5일까지 제29회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전이 개최되었으며,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제62회 마드리드 도서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아르헨티나와 도서들’이란 주제로 개최된 금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전에서는 특히 어린이책들이 붐을 일으켰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출판사들은 독립 스탠드를 설치하여 어린이 서적을 전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어린이들을 책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시그마르Sigmar 출판사는 천으로 제작된 소리나는 <아기 책> 시리즈를 10페소(약 4천 원)에,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출판사인 수다메리카나는 1페소(약 4백 원)에 어린이책을 판매했다. 또한 매일 아동문학 작가들을 초청하여 사인해 주는 행사를 벌이면서, 작가와 어린이 독자가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테네오 출판사는 피카소·샤갈·렘브란트·리베라·칼로 등의 전기와 그림을 곁들인 <어린이를 위한 예술작품> 시리즈를 선보이면서 50퍼센트 할인행사를 했다. 그리고 스페인의 유명 출판사인 알파파라는 마리아 엘레나 왈쉬, 엘사 보르네만과 같은 라틴아메리카 고전 아동물 작가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이번 국제도서전에서는 어린이책의 전시와 판매뿐만 아니라, 도서전에 참가한 출판사들이 3,000여 권의 책을 기증하여 놀이터와 동시에 도서관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린이 마당’을 만들었다는 점도 눈에 띄었다.

한편 5월 30일부터 열릴 마드리드 도서전시회는 <세 문화의 만남>이란 주제로 유대·이슬람·기독교 문화의 공존을 꾀한다. 이런 세

문화의 공존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그로 인한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 또한 이슬람과 유대인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정치·사회·문화적 상황을 스페인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세비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지중해 세 문화 재단>이 후원하는 이 행사에서는 여러 문인들을 초청하여 다문화성에 대한 강연을 할 뿐만 아니라 알 안달루스의 역사, 모로코와 스페인의 관계, 최근 중동의 새로운 상황, 지중해 지역에서의 여성, 세 문화의 대화와 같은 행사도 벌인다. <독서의 역사>란 책으로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알베르토 망겔은 <엘 페이스>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 도서전시회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통합 유럽은 다양한 민족들로부터 탄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적 모델을 찾고 있다. 스페인은 세 종교의 신도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철학과 문학에 관해 세 언어로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스페인은 유럽연합에게 적을 동지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책은 미국과 유럽·일본에 치중되어 있고, 아랍국가들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 제국주의적 사고에 대부분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어린이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문화적 균형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 문화의 공존 역시 기존에 지니고 있던 우리의 사고를 비판적으로 점검해보고 우리가 미래에 어떤 문화적 관점을 지녀야 할지를 보여줄 것이다. ❏